

레드푸드 활용 생활인구 창출 기대 영화도 보고 무주도 즐기고

장수군,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 선정

‘레드푸드(RED-FOOD)’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장수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예산에 군비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북특자치도내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확대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장수군은 ‘세계적 이로운 장터 RED-FOOD 직구마켓’라는 테마로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수군은 이 사업을 통해 ‘장수 만남의 광장’ 레드하우스에서 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레드푸드(RED-FOOD)’를 중심으로 소비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군의 새로운 화플레이스로 떠오르며 개장 1주년을 맞이한 ‘장수 만남의 광장’ 레드하우스에서 직거래 장터, 플리마켓, 체험 행사, 문화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중 진행해 장수군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 예정지인 ‘장수 만남의 광장’ 레드하우스는 장수IC와 인접해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활인구의 유입에 안정적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자녀해 개장한 ‘장수 만남의 광장’은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면서 장수군의 새로운 명소가 사랑받고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으로 ‘장수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인 ‘레드푸드(RED-FOOD)’를 활용하여 도시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의 새로운 생활인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마이돌깨비 난장’ 개최

마이산 돌탑 쌓기 전국대회 · 체험 · 공연 등 프로그램 풍성

진안군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마이산 남부 금당사 공원 일원에서 ‘마이돌깨비 난장’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마이산의 상징 자원인 ‘돌’과 우리 전통 설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도깨비’ 캐릭터를 결합한 복합 체험형 콘텐츠 행사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제1회 마이산 돌탑 쌓기 전국대회’는 돌 조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대회다. 참가자들은 ‘진안’을 주제로 현장에서 제공되는 돌을 활용해 창의적인 돌탑을 조성하면 된다. 참가부문은 △전문부 △가족·학생부 △자유부로 각 10팀씩 구성되며, 2~4인 팀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마이돌깨비 난장 축제 포스터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 평가와 관객 투표로 통해 △독창성 △주제 표현력 △팀워크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총 780만원의 상금이 부문별 수상자에게 수여된다. 대회 신청은 6월 15일(토)까지 이메일 또는 구글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다.

행사장에는 전통 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비석치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스톤 아트 △돌깨비 타로와 △즉석 인화 포토박스 △북고풍 의상 체험 △옛 뽕기 △달고나 만들기 등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또한 추억의 감성을 자극하는 △‘돌깨비 옛날 사진관’과 ‘옛날 점빵 팝업스토어’도 함께 운영된다. 공연 프로그램 역시 풍성하게 구성된다. 퓨전 국악과 판소리 마당극, 인형극, 마술쇼, 서커스, 난타, 버스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행사 기간 내내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원 돌깨비 포토존과 현장 사진을 활용한 미디어월 전시 공간도 조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먹거리 존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먹거리 부스’가 마련된다. ‘옛날 도시락’, ‘사라다뽕’ 등 추억의 간식부터 진안의 향토 먹거리까지 다양한 음식이 준비돼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만남의 광장’ 더레드하우스 개장 1주년 기념 행사

장수군은 ‘장수 만남의 광장’ 더레드하우스 개장 1주년을 맞아 오는 7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만남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장수 만남의 광장’ 더레드하우스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빨간 농산물인 사과, 한우, 토마토, 오미자 등을 활용한 레드푸드 식당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 소통과 힐링공간으로 지난해 4월 개장했다. 이번 행사는 더레드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단

장 송남수)에서 식품클러스터 시제품과 회원기업 상품의 홍보·판촉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행사 참가자는 입장료 1만 원을 내면 장수 사과팩주 ‘캐플비’를 비롯해 사과소주 등 다양한 주류를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다. 주류는 현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뒤 빈 병이나 캔을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클러스터 자체 개발제품인 미트볼, 돈가스, 제육덮밥 등 다양한 먹거리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며 관내



식품기업들의 상품도 전시·홍보될 예정이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가수 이정봉과 지우의 초청 공연을 비롯해 레이저 사격대회, 즉석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흥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참여 다양한 홍보·먹거리 부스 눈길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6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전국 관객들을 향한 지역 홍보 열기도 뜨겁다. 무주군에 따르면 한풍루(지남공원)에서는 영화제 관련 부스와는 별도로 ‘고향사랑기부제’ 등 6개 부스가 마련된다. ‘무주관광 안내 부스’에서는 영화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주명소를 소개한다.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홍보도 진행하며 무주사랑상품권 및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무주사랑 고향사랑 부스(10:00~18:00)’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안내 및 반딧불이 신비탐사관, ‘반딧불 사과’ 등 무주군이 준비한 답례품 72개를 알아볼 수 있다. ‘천마’와 ‘머투와인’ 등 대표 답례품이 전시될 예정이며 당일 현장에서 무주군에 기부하면 영화제 기간 등나무운동장 입장권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무주·진안 국가지질공원 홍보부스’에서는 무주 오산리 구강화강편마암(천연기념물), 적상산 천일폭포, 외구천동지구, 용추폭포, 금강버섯길 등 무주지역 5개 지질명소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자식 퍼즐 맞추기 이벤트에 참여해 볼 수 있다. 퍼즐을 완성하면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태권도원(한국관광 100선, 웰니스 관광지, 코리아 유니크 베이스 선정) 부스(10:30~18:00)’도 운영된다. 태권도원 부스에서는 태권도 성지로서의 태권도

원을 소개하고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 시범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홍보물을 배포한다. 또한 SNS 온라인 채널 가입 및 뽕기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이의 전북도청에서 진행하는 ‘전북 사랑도민증 무료 발급처’에서는 전북 사랑도민증 홍보, 할인 혜택 및 가맹점 소개, 전북투어패스 지급 이벤트에 참여해 볼 수 있다.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받으면 차량용 방향제 등 홍보품도 제공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부스(10:30~18:00)’에서는 ‘야광 파과 코드 생존팔찌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300kg 하중을 견디는 파라코드 낙하산줄(2m)도 팔찌를 만드는 체험으로, 이 팔찌는 위급상황(비상탈출, 물놀이 사고 등) 시 활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8개 부스가 참여해 저렴한 가격에 친환경 무주의 맛을 선보인다. 무주산 ‘천마 와의 조화가 일품인’ 천마왕생돈가스(9천 원)부터 무주산 옥수수와 썬, 사과, 흑임자가 들어간 ‘덕유산도(개당 3천 원)’, 영화소풍 길에 제자인 ‘주먹밥(4천 원)’,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챙긴 ‘통밀볼고이(포피아)(1만 원)’, 매력 만점 ‘닭강정(1만 원)’, 케첩이 들어간 옛날식 소스가 특징인 ‘탕수육(1만 원)’, 한 끼 식사로도 안주로도 그만인 ‘숙주와 삼겹살(1만 원)’ 무주산 딸기가 듬뿍 들어간 ‘무주딸기라떼(6천5백 원)’ 등 16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역경제 회복 견인’

진안군은 4일 지난 2월 전 군민에게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사용률이 94%에 달하면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군은 지난 2월 19일부터 배부를 시작

해 전체 대상자의 98%에게 지급을 완료했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속한 소비로 6월 2일 기준 지급액의 94%에 해당하는 약 45억 원이 소비됐다. 특히,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미만의 관내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이 순환되도록 유도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6월 마을축제로 공동체 회복 · 화합 기대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에서는 6월 한 달간 관내 총 6개 마을에서 마을축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오는 7일에는 상진 중기마을에서 향우회와 함께하는 축제가 열리며, 14일에는 용담 회룡1마을, 백운 원동정마을, 주천 중리마을에서 마

음이 가진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개성 있는 축제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21일에는 진안을 상가마을과 성수면 중령마을 행사를 끝으로 6월 마을축제의 대장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4060 한의약 건강교실 운영
무주군이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4060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무주군은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한방 진료를 기반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월부터 6개 읍면지역을 순회하며 4060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설천과 부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으며 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무풍면 어울린센터에서도 진행 예정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 기초 검사를 비롯해 체질량지수와 근력지수, 체수분량 등의 체성분 검사, 그리고 개인 증상에 맞는 한방 침과 한약 처방 등의 한의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통 금연 클리닉에서는 금연 상담과 등록, 금연보조제 처방 등 지원에 힘쓴다.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교육과 구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의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춘 운동 지도와 영양 상담, 식단 정보가 공유되며,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검사도 진행된다. 또한 무주군보건자료원에서는 우울증 선별검사와 스트레스 검사 결과에 맞는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주소 정보시설물 전수조사 완료
무주군은 지난 1월부터 추진한 2025년 주소 정보시설물 전수조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주소 정보시설물 전수조사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스마트 KAS)을 활용해 현장을 점검했다. 무주군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6개 읍면 267개 마을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1만3,148개, 도로명판 3,420개, 기초번호판 579개 등 총 1만7,147개에 대한 실제 상태를 확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